

남원시 '친환경 에너지 임대형 스마트팜' 유치 도전장

농식품부 공모...지역소멸 위기 극복·청년 인구 유입 목표
다음달 최종 선정...333억 투입 스마트 제어 시스템 등 탑재

남원에 'Eco(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타운'이 조성될지 주목된다. 남원시는 스마트팜 창업 희망 청년들의 시설 투자 부담 경감과 창업 초기 영농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최근 농식품부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 고령화 및 인구감소 극복 등의 목적도 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남원시에 청년을 농업·농촌으로 유입할 효과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대산면 소재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의 폐열을 이용, RE100(재생에너지 100%)달성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강점을 갖고 있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국비 140억원을 포함한 총

333억원 사업비가 투입된다. 7ha 규모 부지에 경량 철골온실 4ha가 조성될 예정이다. 온실에는 냉난방 시설, 폐열 에너지 공급시설, 스마트 제어 시스템 등이 탑재된다. 특히 시는 대산면 수덕리 일원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기점으로 천연물 바이오 소재 산업을 연계한 40ha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단지도 계획하고 있다. 공모사업 선정 여부는 11월 중 최종 결정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공모에 선정되면 남원시만의 특색 있는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팜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에서는 Eco에너지 스마트팜 혁신타운의 조성으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일원의 'Eco(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타운' 예상부지 전경. (남원시 제공)

정읍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 개설 추진

예술회관~양우내안에 등 80억 투입 내년 마무리

정읍시가 협소한 폭을 확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설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총 4개 노선으로 사업비는 80억원 규모다. 예술회관-양우내안에, 대은사-사랑병원, 관동로-상사1길 등 3개 노선은 내년 초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상동 순정축협-송령교 간 도시계획도로는 시설계용역과 보상협의를 진행 중으로 내년 3월 착공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은사-사랑병원 구간은 작은말고개 도로와 연

계성 확보로 상동 북부권 이동 교통량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동로-상사1길 구간은 노후주택이 밀집된 화재 취약지구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하다. 상동 순정축협-송령교 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인도가 없고, 내장천변로와 연결된 송령교가 당초 1차선으로 차량통행 시 주민불편이 많았다. 정읍시 관계자는 "신규 도로로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등 재난예방에 필요한 도로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가루쌀 카스테라 빵·자장면...밀가루 대체 시연

남원시농기센터 현장평가회
수확·건조 과정 등 선보여

남원시는 최근 가루쌀 생산의 성지 대산면에서 새작법인(대표 황운연)과 남원시농업기술센터가 현장평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열린 행사에는 최경식 시장을 비롯한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 등 관계 공무원과 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가루쌀 포장 콤바인 수확 시연, 건조 시설 가동 시연, 가루쌀을 활용한 카스테라빵과 가루쌀로 만든 자장면 시식 등으로 진행됐다. 가루쌀은 올해 6월 중순 파종을 시작해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수확이 진행 중인 글루텐 프리(Gluten-free) 식품으로 밀, 보리 등 곡류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 성분인 글루텐(Gluten)에 민감한 장애인, 알레르기 등 신체에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다. 또 변화된 소비구조에 맞춰 가루내기 쉬운 가공



최경식(왼쪽 두번째) 남원시장이 가루쌀 생산 현장평가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남원시 제공)

용 품종으로 밥쌀과 달리 전분 구조가 밀과 같이 건식 제분이 가능해 습식제분 대비 가공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논 기반을 그대로 활용해 동계작물과 이모작에도 유리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나해 농식품부 가루쌀 생산

단지 조성 지원사업 공모 선정을 시작으로 남원시 가루쌀의 포문을 열었으며, 향후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내년에는 재배 면적을 45ha에서 100ha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고인들의 가치를 돌아보다

군, 전시·학술대회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을 주제로 특별 전시를 겸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고창군은 지난 25일 고인돌박물관에서 '고인돌 숲, 신비로운 돌의 초대'란 주제의 특별전시와 '세계 거석문화로 비춰본 고창 고인들의 가치'란 주제의 학술대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전시와 학술대회는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2023년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의 하나로 기획됐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주관한 학술대회 1부에서는 ▲세계유산 고창 고인들의 고고학적 의미-서울대학교 김종일 교수 ▲고창·영광지역 고인들의 분포양상과 고인돌 사회의 성장-조선선 전

남대학교 교수-김수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고창 고인들의 경관 구조와 의미-강동석 동국대학교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세계 고고학계의 거석 기념물 최신 연구 경향과 고창 고인들의 연구 방향-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고일홍 교수 ▲고창지역 고대사회 내에서 고인들의 의의 조망-삼국시대 유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최영은 씨의 발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은 충북대 김범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조선대 천선행 교수, 한국전통문화대 김경택 교수와 발표자 전원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내년 4월28일까지 운영되는 특별전시는 세계의 거석문화(巨石文化)와 한국의 고인돌을 살펴보고 전국 고인돌에서 출토된 60점 이상의 유물들을 선보인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서남권추모공원 제2봉안시설 가동

정읍시가 시민들을 위한 서남권추모공원 내 제2 봉안시설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제2봉안시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30억원을 투입, 2018년 사업을 시작해 부지보상과 설계를 완료했고 지난해 2월 착공해 제2추모관(1만2000

여기)과 자연장지(1만여기)를 완공했다. 이로써 시는 매장시설인 시립묘지(2775기), 화장시설(화로5기), 봉안당(2만여기), 자연장지(1만5000여기)를 모두 갖추고 있는 종합장사복지 문화의 선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은 전북지역 정읍·김제·고창·부안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조성·운영 중이며 정읍시는 이와 더불어 정읍시민을 위한 자연장지와 봉안당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기존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만장이 빠르게 다가옴에 따라 자연 화장의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명품 추모공원을 조기에 완공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